

## 여러분의 몫입니다.

### 지켜야 될 의무

저는 교회에서 세례식이나 서약을 갱신할 때 행해지는 서약의 언어들에 가끔 놀라곤 합니다. “당신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회개하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겠습니까?” 놀랍습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듣게 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만약 구글에서 일하고 있다면,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말을 정기적으로 들을 것이므로 그러한 서약이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것들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중 문화 속에서 악으로 매도당하는 여성들을 보거나,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 받는 지역을 방문할 때면 악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보통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서약의 언어는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가장 깊고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는 관계를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받고 평등해 질 수 있다는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부족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일 것입니다.

이 서약의 언어는 또한 악한 힘과 권력을 거부하고 배제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전이며,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비열해지려는, 사람들을 무시하려는, 지구를 훼손하려는, 경솔하게 직권을 남용하려는 등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정책, 관습, 제도 등을 포함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 제도는 미국 내 부의 편중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이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사회학자들은 확신합니다. 세계 정책은 종종 환경적으로 위대한 일들을 벌인 사람이나 기업들에 대해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그들은 그저 벌금을 지불하면 그만이지만, 근로자들과 공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 심지어 생태계는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빈곤국에서는 토지와 물 그리고 다른 천연 자원의 이용을 관리하는 제도들로 인해 정부들과 기업들이 필요한 자원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의 결과가 얼마나 더 부정적이 되어야 우리가 그것들을 "악"이라 부르고, 그 악을 거부하고 배제하는 우리의 의무를 받아들이게 될까요?

감사하게도,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서약은 바로 의무를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친교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이런 세례 서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신실한 형제자매의 공동체들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전을 받았으며, 악의 세력을 식별하고 "이것 아니면 저것" 이어야 한다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거부하기 위해 함께 일을 하며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세례 예식은 회중에게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들이 바라는 소망이 확증되며,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라."는 의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사랑하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사역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총무 헤리엇 올슨